

## 전체 주제 :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 메시지 2

#### 연결하는 믿음 — 이기는 이들의 믿음

성경: 히 13:7, 롬 1:17, 4:17, 10:17, 갈 5:6, 6:10, 롬 12:3, 영한 동변 찬송가 535장(내 마음의 노래 296장)

#### I.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히 13:7, 행 6:5)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롬 10:17)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A.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며, 우리는 이 요점의 결정(結晶)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에는 세 방면이 있다.
  - 1.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 — 요 10:35.
  - 2. 그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 요 1:1.
  -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이신 그 영이 있다 — 엡 6:17, 요 6:63.
- B. 기록된 말씀과 살아 있는 말씀과 적용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영 곧 그 영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 C. 믿음의 근원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접촉하고 그 영의 말씀으로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 롬 4:17.

#### II. 우리는 믿음의 효능 곧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A.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져라.’라고 하면 옮겨 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마 17:20하.
- B.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작사한 영한 동변 찬송가 535장(내 마음의 노래 296장)은 믿음의 효능을 보여 준다. 5절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항상 우리를 무효화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마 19:26). 그런데 주님은 또한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에 적용된 주관적인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이 믿음에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 III.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 갈 6:10.

- A. 이 가족은 큰 집안이며 이 집안의 성(姓)은 ‘믿음’이다. 이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스미스 씨 가정’ 혹은 ‘이 씨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 가정’의 식구들이다.
- B. 우리는 큰 집안인 믿음의 가족의 식구들이다. 이 믿음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 히 1:2, 마 17:5.

IV.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요 3:15, 36).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고 그 영 안에서 실재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는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행한다.

- A.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 요 1:12-13, 3:16.
- B.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재화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믿음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과 연결한다.
- C.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신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분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러야 한다 — 요 15:1, 5.
- D.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연결점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러한 연결이 우리를 하나님-사람들로 만든다.
- E. 우리는 연결하는 기관에 의해 그리스도를 사는데, 이 연결하는 기관은 믿음이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사는 생명이 믿음 곧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 F. 우리가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분배된 믿음이 되시며,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으로 그분을 산다. 살아 있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작용한다(갈 5:6). 믿음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며, 이 믿음은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 G.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온, 단지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주님을 조금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으로 주입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되며, 이 믿음은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다 — 빌 4:6, 12.
- H. 우리 믿는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곧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이 믿음은 항상 우리를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결한다 — 고후 5:7, 히 11:27, 벰전 1:8.
- I.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셨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 붓는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 히 4:16, 롬 10:12-13, 담후 2:22, 엡 6:17-18, 시 119:15과 각주 1.

- A.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옮겨 부음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살아 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 이것이 곧 믿음의 전진 단계 안에 있는 믿

는 이들의 믿음이다.

- B. 시작 단계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그 영께서 우리 안으로 설치되셨다. 우리 안으로 설치되신 이 영 혹은 이 믿음은 이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자란다 — 롬 10:17, 12:3.
- C.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 절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표어로 간주될 수 있다 — 합 2:2-4.
- D.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시작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 단계이다. 둘째 단계인 전진 단계 안에 있는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삼 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
- E.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여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게 했는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때, 둘째 단계 안에 있는 연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 비교 골 2:19.

**VI.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A. 냉철한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에 있어서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양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라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랐던 것처럼 자란다면, 우리가 받는 믿음의 몫은 아주 커질 것이다.
- B. 하나님은 먼저 질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고, 그다음으로 양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시는 것에 달려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에 달려 있다.
- C.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냉철한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시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줄어들게 하실 수도 있다 — 비교 눅 1:53, 마 5:3.

**VII. 믿음은 믿는 이들의 생활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이다 — 살전 1:3-4, 7-8, 롬 1:8.**

- A.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일’을 기억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는 표시가 되었으며, 그러한 생활의 결과로 그들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 — 살전 1:3, 7-8.
- B. 믿음은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위대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살고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이다 —

딤편 1:5, 딤후 1:5.

- C.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위치만 니처럼 일보다 생명이 더 관심을 두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참조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위치만 니 전기, 11장.

**VIII. 연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맞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 A.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회를 베푸셔서,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곧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며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조금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 고후 1:8-9, 요 15:5, 빌 3:3, 비교 야 8:5.
- B. 존 넬슨 다비(J. N. Darby)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이것이 믿음이다.
- C. 우리는 큰 기적이거나 큰일이나 큰 성공을 위해 있지 않다. 주님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연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감추어진 이기는 이들로 발견하기를 기대하신다 — 롬 11:3-4, 시 83:3하.
- D.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는 연결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크게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믿는 이들을, 그들의 믿음의 결말(결과)인 그들의 혼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보배들로 발견하실 것이다 — 뵤전 1:8-9.
- E.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마 25:10, 계 19:7-9).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이기는 이, 곧 살아 있는 믿음으로 항상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가 되는 것이다.

**IX.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왕이 되는 권리와 그분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보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것이다(계 20:4, 6). 그때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마 25:21, 23)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X. 우리는 이 연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는 그분의 유기적인 지체들로 산출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신성과 인성의 비밀한 연결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지니신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확대하고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이다(계 21:2-22:5).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영원한 성취이다!**